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경영

한국후지제록스(주)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 후지제록스는 기업 활동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cology&Safety(환경 보전과 안전)를 기본 환경경영 비전 및 방침으로 제정, 세계 최고 레벨의 환경경영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후지제록스 그룹은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근저에 두고, 1970년대 중반 ‘공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그린 제품(Green Product) 컨셉트를 도입하여 제품을 개발했다. 1995년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가동하며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지속해온 후지제록스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경친화형 기업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또한 후지제록스 그룹의 기업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업무에 있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 및 제품

* 업계 최초로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복합기 출시

후지제록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용 시 에너지가 절약되고 CO₂ 배출량이 낮은 환경 친화형 상품과 기술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지제록스는 2008년 복합기 부품의 일부를 옥수수 소재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Biomass Plastic)으로 만든 친환경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II(ApeosPort-III) C3300/2200/2201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친환경 복합기 도큐센터(DocuCentre)-IV C2260를 출시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큐센터-IV C2260는 일본바이오매스플라스틱협회(JBPA)가 인증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품의 드럼 카트리지 커버에 사용했다. 후지제록스가 개발한 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옥수수 성분이 전체 플라스틱 중량의 30% 이상 함유된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후지제록스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사용을 통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기존 플라스틱(ABS 수지) 대비 20% 가량 줄였다. 이 외에도, 토너가 용지에 정착되는 온도가 기존 토너 대비



한국후지제록스(주) 홍보팀 |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경동빌딩 B동 8층
tel.02-310-6154 |
mijeong.lee@kor.fujixerox.com

20도 이상 낮은 EA-에코 토너 기술을 탑재해 전력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으며, 친환경적인 LED(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스캔 기술로 전력 소비를 기존 자사 모델 대비 70%까지 줄였다.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100% 자원순환형 시스템

* 통합자원재활용시스템(IRRS, International Resource Recycling System)
후지제록스 그룹은 Closed Loop System을 주축으로 저 환경 부하, 안정 수급, 안정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의 확립과 폐기물 Zero화를 실현해오고 있다. 통합재활용시스템은 사용이 끝난 상품을 자원으로 유효하게 이용하는 ‘Closed Loop System’을 중심으로, 부품의 재사용을 전제로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Inverse-Manufacturing(역제조)’, 재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분별·재자원화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Zero Emission’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후지제록스는 2004년 12월 태국에 재활용 센터 FX Eco-Manufacturing Co., Ltd.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9개 국가에서 사용했던 폐사 무기기 및 카트리지를 수거해, 이를 완전히 해체하고 분해한 후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중국에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자원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중고 복사기 및 복합기 부품 중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부품들만이 다시 생산라인으로 보내지게 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최고 44개, 태대지역에서는 최고 74개 부품군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부품들은 재활용 가능한 물질과 재료로 철저히 분해되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금속이나 고무, 유리 등은 원재료 형태로 철저히 분해된다. 즉, 제품이 아닌 자원을 생산해내는 공장으로서 제한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자원의 순환’을 이행함으로써 후지제록스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후지제록스는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2009년 회수된 제품의 99.8%를 재자원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

후지제록스의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한 6가지 화학성분(납, 카드뮴, 수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만족시킨다. 후지제록스는 또한 독자적인 화학물질 삭감 방안으로 폴리염화비닐, 할로겐 난연재 등도 사용을 제한하며 친환경적인 부품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3년 전 제품에 대해 프레온 가스 사용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일본 산업계 최우수 모범 사례로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 ① 땀남 : 2002년 전폐
- ② 개채 내장 용 Halogen계 난연재 플라스틱 : 2002년 전폐
- ③ Halogen Free 전선 : 2002년 도입 개시
- ④ Halogen계 난연재 Free기판 : 2002년 도입 개시
- ⑤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04년에 40% 삭감('02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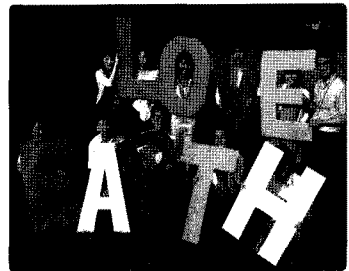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친환경 활동

* 한국후지제록스 녹색경영 기반의 정비

한국후지제록스는 환경경영에 일찍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환경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인 ISO14001 인증을 1997년 인천공장에 대하여 취득하였고, 2001년에는 부평 공장, 2003년에는 본사 및 영업본부로 ISO14001 인증 취득을 확대하며, 전사적 차원의 환경경영을 운영해 오고 있다.

* 한국후지제록스 녹색 활동

한국후지제록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및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캠페인을 매년 실시 하는 등 회사 임직원과 사회구성원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인천광역시, 카톨릭환경연대 등과 함께 '월미산 황조롱이 가족대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환경행사를 후원하고 사원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서울 청계천 광장을 청소하는 환경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매년 후지제록스 Group 차원의 Leafx(Love Earth Action Fuji Xerox) 캠페인을 실시, 지구환경문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사원이 회사나 지역, 가정에서 사회공헌 및 환경보전활동에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소등 캠페인, 에너지 절약 관련 포토콘테스트 등 시행)



친환경 활동 추진 성과

*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창사 이래 환경 경영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한국후지제록스는 환경친화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 2004년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에서 환경경영시스템 기업부문 최우수상(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통합 재활용 시스템' 으로 연간 약 3,860톤의 자원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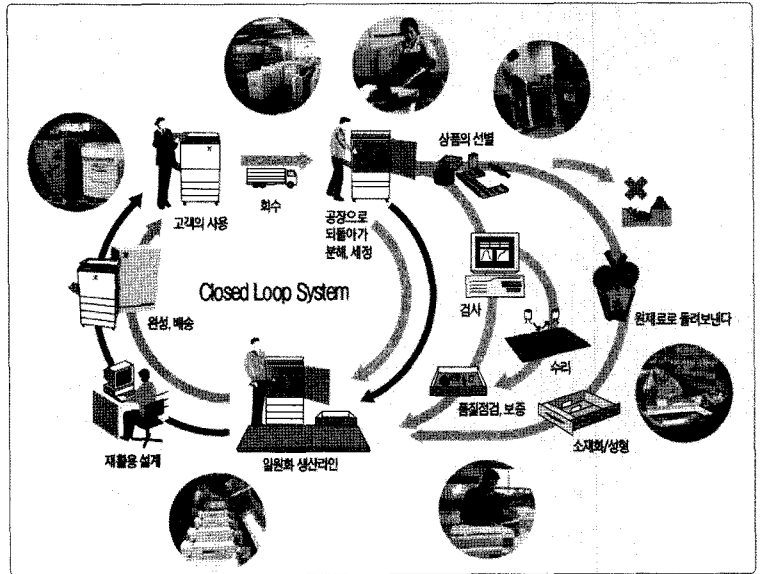
후지제록스는 통합 재활용 시스템(Integrated Recycling Systems)을 활용해 한해 동안(2007년 4월~2008년 3월 기준) 일본 및 아태지역에서



약 2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고 연간 약 3,860톤의 자원을 절약했다. 이러한 결과는 후지제록스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재활용 부품 사용량이 2005년 1만 1,000개에서 2007년 1만 7,000개로 약 50%이상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품 사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이다.

*** 日 에너지절약대상 '자원에너지청 장관상' 11년 연속 수상**

후지제록스의 컬러 디지털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ApeosPort-IV)' 시리즈 4개 모델과 '도큐센터-IV(DocuCentre-IV)' 시리즈 4개 모델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2009년도 제20회 에너지 절약 대상에서 에너지 절약 기기 및 시스템 부문 경제산업성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후지제록스는 1999년 디지털 컬러 복합기 '도큐컬러(DocuColor) 1250' 시리즈로 이 상을 처음 수상한 이래,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외에도 후지제록스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선정하는 '2008 환경능률상'을 수상했다. 환경능률상 수상은 고객들이 원하는 경영효율성과 친환경 사이의 균형 잡힌 솔루션을 공급하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후지제록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지속경영 노력이 높이 평가 받은 결과였다.